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6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합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광주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는 광주시생활체육회 직원들이 3·1 마라톤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지하철을 꿈꾸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3·1 마라톤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활력 광주’ 이끄는 시민 건강 지킴이

■ 광주시생활체육회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으로 건강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뛰며 건강과 운동의 소중함을 알릴 계획이다.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는 생활체육회는 시민들 속에 생활체육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1인1종목 갖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확대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2011 국민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1인 1종목 갖기 운동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 어린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 마련에도 분주하다. 종목연합회가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아 대회 집행과 행정적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5~6개 종목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체계적인 생활체육 육성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생활체육회 직원은 대부분이 생활체육 전공자 및 자격증을 갖춘 체육인들로 이번 마라톤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찬준 회장은 “매년 직원들이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한 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며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광주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2년째를 맞는 김현성 사무처장은 태권도, 합기도, 요가 등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달인. 이번 대회에서도 힘찬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

김현성 처장은 “합기도, 태권도 등으로 김현성 씨를 꾸준히 해 온 만큼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마라톤 완주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광주시생활체육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필오 사업부장 역시 가족과 함께 등산과 걷기로 마라톤 대회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민과 함께 뛰며 문화 지하철 홍보”

■ 광주도시철도공사

“10년간 받은 시민 사랑, 1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올해도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에 출사표를 던졌다. 창립 이후 해마다 3·1절 마라톤에 참가, 좋은 성적을 거뒀던 광주도시철도공사지만 올해의 포부는 남다르다.

올해로 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할 때다. 10년 전의 첫걸음처럼 초심으로 뛰어보겠다는 광주도시철도공사팀의 발끝에서는 봄바람 같은 설렘이 묻어난다.

광주지하철은 지난 10년간, 완벽한 안전관리와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로 광주시의 주요 간선 대중 교통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지하철 역사를

시민 생활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문화지하철 사업과 특화된 시민 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큰 찬사를 받아왔다.

올해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완성, 시민의 행복 창조를 위한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큰 도약을 펼쳐겠다는 계획이다. 발상의 전환과 감도높은 수익 모델 창출로 글로벌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당찬 포부를 이루기 위해 임직원 전원이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취임 이후 ‘따뜻한 직장! 가족친화 경영!’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화합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이호준 사장이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지하철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길 바란다’며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어 참가자들의 사기는 그 어느 해보다 높다.

사내 커플 부부인 이용화 주임(차량팀)과 백명주 사원(경영관리팀)은 “올해 세 살인 아들의 생애 첫 마라톤이 될 것”이라며 “건강도 챙기고 가족 사랑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10Km에 도전하는 최미용 과장(기술관리부)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부서원들이 새로 바뀌게 돼, 새 동료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며 “이번 마라톤으로 건강도 관리하고 직장 생활의 활력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전 선수 외에도 공사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하철 홍보와 함께 뜨거운 응원을 펼칠 예정이어서 이번 대회가 조직 화합의 장이자 가족친화 경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종 무기’ 신종길 만루포 위력 과시

김상현도 투런홈런 ... KIA, 9-5 요코하마 제압



신종길

‘신종 무기’ 신종길의 한방이 터졌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오키나와 기 노안 구장에서 열린 요코하마와의 연습경기에서 신종길의 만루포를 앞세워 9-5로 승리를 거뒀다. 김상현도 투런포를 날리며 타선에 힘을 더했다.

전날 주니치와의 연습경기에서 침묵을 지켰던 신종길은 오키나와 리그 첫 안타를 만루홈런으로 장식했다.

신종길은 차일목의 우전안타로 시작된 3회초 1사 만루의 기회에서 요

코하마 두 번째 투수 해밀턴의 초구를 밀어쳐 왼쪽 담장 넘어가는 만루 홈런을 만들었다. 홈런 한방으로 4점을 쓸어들인 KIA는 김상현의 투런포까지 더해 9-5 승리를 거뒀다.

신종길은 2012시즌 KIA의 야심작으로 조련되고 있는 ‘신종무기’

빠른 발과 배트 스피드로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특별 관리 선수로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스프링캠프에서 확고한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일본으로 캠프를 옮긴 뒤 진행된 22

일 첫 연습경기에서도 4타석 모두 범타로 돌아섰다.

이순철 수석코치는 “첫 타석에서 실패가 나오니까 위축돼서 다음 타석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지 못했다”며 신종길에게 자신감을 주문했다.

요코하마와의 연습경기 첫 타석에서도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지만 신종길은 두 번째 타석에서 초구를 공

략해 홈런을 만들었다. 밀어쳐 만든 홈런이라 더욱 값졌다.

코칭스태프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신종길에게 변화구 대처와 함께 상황에 맞는 스윙 변화를 숙제로 내줬다. 잡아당기는 스윙 일반도인 신종길에게 “밀어쳐도 각도만 맞으면 안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완벽한 안타가 아니더라도 안타를 만들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가져라”며 밀어치는 법을 강조했다.

변화구를 잡아내는 법, 안타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신종길이 자신의 틀을 깨고 스피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KIA 팬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용병 좌완 라미레즈 영입

메이저리그 8시즌 40승

KIA 타이거즈가 빅리그 출신의 좌완 호라이소 라미레즈(Horacio Ramirez·33)를 영입했다.

KIA는 23일 호라이소 라미레즈와 계약금 5만불, 연봉 25만불 등 총 30만불에 계약을 맺었다.

미국 출신인 라미레즈는 신장 186cm, 체중 100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좌완정통 투수로 2003년 에틀란타에서 메이저리그 생활을 한 이후 지난해 로스앤젤레스까지 총 8시즌을 메이저에서 보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3시즌을 활동했다.

메이저에서는 169경기에 등판해 40승 35패 방어율 4.65를 기록했고,



마이너에서는 186경기에 나와 3.97의 방어율로 50승 48패의 성적을 냈다.

150km에 육박하는 직구를 던지는 라미레즈는 불꽃의 변화가 좋고 노련한 경기운영 능력을 갖춰 선발로 활약했다. 불펜 경험도 풍부해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라미레즈는 24일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 루마퀀팅, 3M코팅, 모비스퀀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글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기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명 매장

주차장 700명 주차장

일일신협 조합원 전용 할인점 (20번점)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2만원 ⇒ 12만원
- ▶ 아이나비K100, 3D(8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 만도지니 J7,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 모비스폰투스 PU-7, 3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 모비스폰투스 K-7, 2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 본인네비 매립 = 7만원 ⇒ 12만원
-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합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770B 40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7 37만원
- ▶ E7 17만원
- ▶ E1 7만원
- ▶ E2620 10~14만원
- ▶ EZ5500 25만원